

대형계열기획보도 — 백성이야기 (169)

촌민들의 '손녀딸', 흠내음 속에서 향촌진흥의 꿈 키우다

— 화룡시 룡성진 신원촌 향촌진흥 전문간부 김선연의 촌사랑 이야기

“선연이는 참 착한 아가씨예요. 거동이 불편한 우리 로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로심초사하죠. 우리 친손녀나 다름없어요.”

화룡시 룡성진 신원촌의 장기환자 어태근의 부인 리경자할머니는 촌의 향촌진흥 전문간부 김선연(30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80세 고령의 어태근로인은 “당과 정부에서 우리 촌에 이렇게 똑똑하고 마음씨 곱고 일처리 또한 똑 부러지게 하는 우수한 처녀를 보내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소!”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최근, 기자 일행은 “드높은 열정으로 농촌에 뿌리박고 촌민들과 함께 향촌진흥의 꿈을 무르익히는 젊은 일군이 있다.”는 화룡시 룡성진 신원촌 촌주재 서기 김성걸의 제보를 받고 김선연을 만나 그의 촌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국 이화여대 석사졸업생이 시골로 온 이유는?

2021년 가을, 한국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마친 김선연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었다. 한국에 남을 수도, 해외 다른 나라에 취직할 수도, 중국의 대도시로 진출할 수도 있었다. 특히 졸업하자마자 상해 등 국내 대도시에 취직하면 바로 호적을 올릴 수 있는 유혹적인 우대정책도 있었지만 그녀가 택한 길은 남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바로 고향 연변이었다.

“서울 이태원 거리를 활보하다가 졸업하자 왜 굳이 시골마을을 찾아가냐고 묻는 사람이 주변에 많았어요. 하지만 낯선 외국에서 고향 연변만이 줄 수 있는 안정감과 중화민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나를 키워준 고향에 보답하고 촌민들의 향촌진흥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2023년, 김선연은 연변 기층관리 전문간부 공개초빙 시험을 거쳐 신원촌에 향촌진흥 전문간부로 배치받았다.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시골살이가 어느덧 2년 반에 가까와왔다.

현장 경험과 소통으로 열어진 촌민들과의 신뢰의 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체계적이지만 실제 촌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어요. 특히 해외에서 빠른 생활방식과 업무 처리 방식에 익숙해진 저에게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촌의 ‘관계 중심’의 일처리 방식은 초반에 진짜 적응하기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특별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뛰어난 조선어와 한어 능력에 뒤받침된 소통 능력이었다. 조선족 촌민 비율이 높은 신원촌에서 그녀의 이런 우세는 촌민들과의 교류와 신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벽이었어요. 중앙과 지방 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이 한어 문서로 내려오는데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이런 정책 안내문을 조선어로 번역했는데 어렵고 딱딱한 행정 용어를 촌민들이 일상에서 쓰는 쉬운 말로 풀어 설명했다.

“정책은 ‘발두렁’까지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촌민들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언어와 생활방식에 맞춘 해석이 필수적이죠.” 그녀는 단순히 문서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소규모 마을 회로나 가정방문 때면 ‘이야기’ 방식으로 정책을 풀어 설명하고 촌민들의 자문에도 해답해주었는데 년



신원촌 촌간부들과 함께 (좌로부터 촌주재 제 1 서기 김성걸, 향촌진흥 전문간부 김선연, 부녀주임 김해옥.)

세 많은 촌민들의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졌다. 촌민들이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으면 대신 작성해주고 신청 절차를 도우며 정책이 ‘문서’에서 ‘실천’으로, 촌민들의 ‘생활혜택’으로 직접 연계되도록 했다.

“처음에는 손녀 딸의 낯선 젊은이가 왔다고 촌민들이 어색해했는데 제가 자주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다 보니 이제는 촌민들이 저를 보면 먼저 반갑게 손을 잡아줘요.”

마을의 고령화로 인해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촌간부들을 대신해 전자문서 작성, 데이터 정리 등 디지털 업무를 총괄하는 것도 그녀의 중요한 역할이다.

“젊은 세대의 디지털 역량은 향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로간부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



친근한 ‘손녀딸’ 김선연이 촌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과 제가 가진 디지털 기술 역량이 결합되어 촌 운영이 더 견고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흠내음을 포장도로로, 촌민들 마음의 길도 열다

그녀의 진심은 촌민들을 위한 일상 속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마을 일을 시작하며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비만 오면 진흙탕으로 변하는 흠내음이었고 말한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통행은 물론 농작물 운수에도 큰 지장을 주었던 것이다. 이에 신원촌당지부 리광호 서기는 시교통운수국을 수차례 오가며 낡은 도로 개선 공사를 쟁취하고 예산 확보에도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다양한 리해관계 조정과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갔다. 촌민대표 회의를 조직해 의견을 모으고 촌간부들과 함께 집집마다 방문해 농촌도로

공사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가장 민감했던 부분은 공사구역이 일부 주민의 앞마당이나 작은 텃밭을 점하게 되는 경우였다. 그때마다 해당 가정을 방문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공사로 인한 부분적 손실이 불편에 대해 공사 후 더 나은 상태로 복원하거나 작은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리해를 구했다. 그녀는 현장을 오가면서 시공팀과 촌민 사이의 소통에 가고 역할을 자처했다. 그때 애간장을 태우다 못해 울음을 터뜨린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두달간의 긴장한 공사 끝에 마침내 깨끗하고 넓은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촌의 모든 가정 대문 앞까지 이어졌다. 길이 준공 되던 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비가 와도 걱정이 없겠구나.”라던 촌민들의 한마디 말이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다는 그녀이다.

간부, 당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두를 직접 빚어 홀로 계신 로인들과 어려운 가정에 직접 전해주었다. 그때 한 로인은 “자식들도 바쁘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따뜻한 음식까지 챙겨주시 정말 든든하네!”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선연이 촌에 온 후 어태근, 리경자 로부부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김선연을 가장 먼저 찾았다. “로인들에게 말도 없게 하는 선연이가 손녀딸이 되어 세심하게 챙겨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두 량주는 지난해 겨울에 있는 일을 회억하며 김선연의 ‘손녀’ 자리를 더 실감했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겨울 어태근은 갑자기 심장병이 도졌는데 병원에 가려고 해도 농촌 마을이라 택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때 리경자는 김선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선연은 바로 차를 운전해 어태근을 병원까지 모시고 가 진료를 도왔다.

지난해 6월, 마을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당과 정부의 인정을 받아 촌에 발령받은 지 2년도 안되어 그녀는 중국공산당 예비당원으로 되었다. 당원이 된 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아닌, 더 높은 기준과 무거운 책임을 부여받는 순간이라는 김선연, “당원으로서 매사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촌민들의 리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지키려는 자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이 농촌에 내려와 봉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사회에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촌진흥의 길에 젊은 에너지와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지역이 더욱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촌민들의 생활습관과 필요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생활에 꼭 필요한 지원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꾸준히 이어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안부를 묻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면서 소통을 이어가다 보면 어려움은 어디까지나 극복할 수 있지요.”

신원촌에는 지금 그녀의 노력이 숨배인 길이 생겼다. 흠내음에서 포장도로로 바뀐 그 길에서 농기계가 달리고 아이들이 뛰놀며 촌민들이 산책한다. 그리고 그녀가 촌민들의 마음속에 낸 ‘신뢰의 길’도 생겼다. 그 길 위에 어태근, 리경자 등 촌민들이 그녀를 손녀로, 딸로 생각하고 찾는 정이 오간다.

김선연에게 신원촌은 단순한 근무지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에서 ‘흠내음 나는 인생’의 의미를 배웠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온기를 느꼈다.

“이곳에는 하늘을 뚫을 듯한 대단한 일은 없어요. 그저 촌민들의 일상적인 안부, 발두렁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 추석명절에 함께 빚는 만두 한 접시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그 소소한 속에서 저는 가장 큰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 뿌리내리고 향촌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어요.”

촌의 젊은이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대도시로, 외국으로 나갔다. 하지만 그들이 비운 자리에서 고향력자 김선연은 그들의 년로한 부모님들과 동고동락하고 있다. 김선연의 꿈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단단해보인다. 발두렁 흠내음 속에서 그녀는 한걸음 한걸음 향촌진흥의 꿈을 무르익혀가고 있다.

/리전 유경봉 기자

로인 건강 관련 위생업계 7가지 기준 발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월 18일 <로인 인지장애 예방 개입 기술 기준> 등 7가지 추천성 위생업계 기준을 발표했다. 관련 기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로인 건강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 기준에는 인지장애 예방부터 기능상실 관리까지의 폭넓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발표된 <로인 인지장애 예방 개입 기술 기준>은 인지장애 예방 봉사기구는 12개월마다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간을 선택하여 인지장애 예방 봉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평가 결과와 대상자의 인지 상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봉사 대상을 조정하고 개인 맞춤형 봉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양로 결합 건강관리 봉사 기준>은 의료양로 결합 건강관리 봉사를 제공하는 기구에 대한 기본 요구와 의료양로 결합 건강관리 봉사의 세부적인 항목을 명시하고 시설, 가정, 사회구역 3가지 봉사 환경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까지 포함시켰다.

<로인 기능상실 예방 봉사 기준>은 봉사 내용에 로인 기능 평가, 기능상실 예방 건강교육, 만성질환 및 위험 요인 관리, 신체활동 지도, 영양관리, 시력 기능 보호, 청력 기능 보호, 근골격질 질환 예방통제, 허약 예방통제, 낙상 방지 등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인민넷 - 조문판

신축 연길수상시장, 6 월말 준공 예정

신축 연길수상시장에 오는 6월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대상은 현대식 시설을 갖춘 전통 시장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쇼핑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최근 기자가 찾은 연길시 삼꽃거리 서쪽, 원달주거단지 북쪽, 연길시 동쪽 연안에 위치한 신축 수상시장 건설현장, 공사용 시설물이 모두 철거되고 3층짜리 주체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건물 안팎에서는 일꾼들이 구역별로 공사를 다그치고 있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신축 수상시장은 수많은 기업을 담고 있는 기존 수상시장에서 1.4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품질의 전면적인 승격을 의미한다. 이 대상은 연길시도시건설투자그룹유한회사에서 건설하는데 총투자액이 약 1억 2,000만 원, 건축면적이 1만 2,000평방미터에 달한다.

건설단위인 연길시도시건설투자그룹유한회사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2025년 8월 정식 착공한 이후 시공단위는 공사 기간이 촉박하고 작업량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

고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주체건물 부분은 토사 굴착 및 매립, 기초공사, 주체구조, 지붕공사, 문과 창문, 유리칸, 미장 등 초기 인테리어를 마쳤다. 또한 에너지절약공사(节能工程),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급배수 및 환기, 소방 시스템, 부지내 도로 기초 및 배관 매설 작업도 전면 완료했다.

동시에 부속건물 건설도 뚜렷한 진전을 가져왔다. 토목공사의 굴착 및 매립, 주체구조, 물, 전기, 소방시설 설치 및 미장 등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현재 대상은 실내장식 단계에 들어갔으며 전체적인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시공 계획에 따라 신축 수상시장 건설대상은 올해 6월 30일 준공 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대상이 사용에 투입되면 현대식 시설과 전통 시장의 기능을 결합해 기존 수상시장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도시 형상을 제고함과 아울러 주변 주민들에게도 더욱 편리하고 질 높은 쇼핑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전기자



연길시

‘교통질서 엄격관리거리’ 추가 지정



‘엄격관리거리’로 추가 지정된 와룡거리 구간

최근 연길시에서는 도로교통안전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도로 통행 환경을 개선하며 도로교통사고의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줄여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고자 ‘교통질서 엄격관리거리’(이하 ‘엄격관리거리’)를 추가 지정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관리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와룡거리(공원로-리하로) 구간을 ‘엄격관리거리’로 추가 지정한다고 공고를 발표했다. 관리 시간은 0시부터 24시까지 매일 24시간 적용된다.

18일, 퇴근 시간을 맞춰 기자가 도착한 와룡거리는 불법 주차 차량이 현대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교통경찰들의 도로 안전 교통지휘가 한창이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의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현장 단속과 교통 기술 감시카메라 활용을 통해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실시하고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관리대 관련 책임자는 “시민들이 도로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문명한 운전과 규범적인 주차를 하며 위험 운전 행위를 삼가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리전기자

